

# 도 고 면 (道 高 面)



도고면은 16개의 법정리, 30의 행정리, 5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1] 도고면 개황

본래 신창면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상기곡, 하기곡, 신촌, 농산, 열명, 내덕암, 외덕암, 석우, 원당, 목동, 신상, 통산, 구암, 원암, 오곡, 보산, 외동, 흑암, 가향, 용산의 20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남상면의 금곡, 음산정, 갈티, 양산정, 하좌랑, 자은, 노산, 정촌, 점촌, 도산, 판방, 포농, 봉암, 시전, 신리, 대천, 황동, 당현의 22개리와 대서면의 신덕, 저전, 구동, 궁전, 양산정, 성조, 신라, 자군동의 8개리와 예산군 금평면의 장곶리와 전 천안군 덕흥면의 언리, 신흥면의 밀두리를 병합하여 이 지방에 유명한 도고산의 이름을 따라 도고면이라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어 금산, 기곡, 농은, 덕암, 도산, 봉농, 석당, 시전, 신유, 신언, 신통, 오암, 와산, 향산, 화천, 효자의 17개리를 관할하다가 1917년 충청남도령 제 8호로써 신성리를 선장면에 넘겨주고, 면사무소를 향산리 용호원에서 도고역이 있는 신언리로 옮기어 16개리를 관할했다. 동쪽은 신창면과 송악면, 남쪽은 예산군 대술면과 예산읍, 서쪽은 선장면과 예산군 예산읍 및 신암면, 북쪽은 신창면에 닿았다. 도고면의 인구는 총 6,959명이고, 세대는 2,154세대가 산다. 그리고 도고면의 면적은 43.93km<sup>2</sup>이다. 도고면의 토지지목별 현황을 보면 토지지목별의 총계는 43,949,807.6m<sup>2</sup>인데 이것을 다섯분야로 나눠보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이다. 이 다섯분야를 면적 단위로 자세하게 나타내면 전은 4,833,130m<sup>2</sup>, 답은 8,849,215.6m<sup>2</sup>, 과수원은 246,108.0m<sup>2</sup>, 목장용지는 10,164.0m<sup>2</sup>, 임야는 24,444,400.0m<sup>2</sup>이다.

도고면의 가축사육 가구를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총 229가구인데 한우를 키우는 가구는 116가구로 제일 많고 젖소를 키우는 가구가 38가구, 돼지를 키우는 가구는 14가구, 사슴을 키우는 가구는 5가구이다.

도고면의 금융기관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은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 금융기관으로 나뉜다. 도고면의 금융기관은 총 7개인데 이 중에서 통화금융기관내에 내포하고 있는 농협이 3개, 비통화 금융기관에 내포하고 있는 새마을 금고가 2개, 체신예금 2개가 있다.

도고면의 의료기관은 병원이 3개인데 이 중에서 의원이 1개 포함된다. 도고면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보면 사업체수의 합계는 395개, 종사자수의 합계는 1,569명이다. 이 중에서 농림수산업의 사업체수는 1개, 종사자수는 3명,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46개, 종사자수는 352명, 건설업의 사업체수는 9개, 종사자수는 33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의 사업체수는 119개, 종사자수는 189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수는 112개, 종사자수는 507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사업체수는 16개, 종사자수는 71명, 금융, 보험업의 사업체수는 112개, 종사자수는 507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사업체수는 8개, 종사자수는 11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의 사업체수는 7개, 종사자수는 94명, 교육,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11개, 종사자수는 78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58개, 종사자수는 160명이다.

도고면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가 있다. 도고면의 문화재는 총계가 2점이고 국가지정 문화재내에 내포하고 있는 민속자료 1점, 도지정문화재내에 내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1점이 있다. 그리고 도고면과 시청과의 거리는 13.2km이다. 도고면은 초대 도고면장은朴容夏씨이며, 아산군 서부에 위치하여 동은 신창면과 송악면을 접하고 예산군을 상대하며, 북은 선장면과 접하고 동부는 산간지 남부는 평야지를 이루고 천안 장항선 및 철도 동서부를 통하고 산세가 험하나 골이 깊어 토지가 비옥하며 농사가 잘 되며 좌우 산세가 안정되어 주민의 인심이 좋고 도고산의 정기를 받아 먼민이 평탄하게 잘 살며, 도고산의 정기를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며, 남상면을 도고면으로 변경하였다 한다.